

2019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2	2	5	3	5	4	5	5	2
6	4	7	1	8	4	9	4	10	4
11	5	12	5	13	4	14	1	15	3
16	4	17	5	18	2	19	3	20	3
21	1	22	3	23	4	24	3	25	4
26	2	27	3	28	3	29	3	30	5
31	1	32	1	33	5	34	2	35	1
36	2	37	4	38	5	39	1	40	5
41	3	42	5	43	2	44	2	45	3

[화법]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과 사실 정보 확인하기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다양한 식재료 조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영양소의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동맥 경화와 같은 ~ 드실 것을 권합니다.’에서 식이 요법이 필요한 질환을 언급하며 식재료 조합을 권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의 ‘육류와 마늘을 ~ 않도록 해 줍니다.’에서 식재료의 성분을 언급하며 유용한 식재료 조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의 ‘혹시 궁금한 점이 ~ 제하고 드세요.’에서 청중의 질문을 듣고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식재료 조합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의 ‘(자료 1을 손으로 가리키며) ~ 않도록 해 줍니다.’에서 손으로 자료를 가리키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식재료 조합의 여러 가지 사례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강연자는 2문단에 제시한 식재료 조합들을 3문단에서 자료 2의 상단은 영양소 흡수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 조합으로, 자료 2의 하단은 특정 성분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식재료 조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자의 듣기 전략 분석하기

㉔에서는 ‘유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다른 식재료를 더 찾아봐야겠다.’라고 추가 학습을 계획할 뿐, 강연과 관련된 추가 학습으로 알게 된 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이 강연의 제목이 ‘찰떡궁합 식재료’임을 알 수 있으므로 ㉔에서 강연 제목을 보고 강연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이 강연의 제목이 ‘찰떡궁합 식재료’임을 알 수 있으므로 ㉔에서 강연 제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건강 상태에 따라 식재료 조합이 더욱 유용한 경우가 있음을 알려 주고 있으므로 ㉔에서 강연 내용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강연자는 강연에서 표고버섯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버섯을 먹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㉔에서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화법 · 작문]

4.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가) 4문단의 ‘공개 토론 이후 ~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에서 공개 토론 이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여 인터넷 신문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고 하였다. 따라서 투표 결과에 따라 공개 토론을 한다는 정보를 제시해야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한편 신문 ~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에서 공개 토론을 진행하려는 목적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의 ‘공개 토론회는 11월 5일 17시에 강당에서 개최된다.’에서 공개 토론이 진행될 일시와 장소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의 ‘이 토론은 우리 학교에 ~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다.’에서 동아리 내에서 토론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3가지 쟁점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요약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초고 수정의 이유 파악하기

<보기>는 기사문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동아리 토론을 ‘언제’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얼마 전’이라고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기사의 ‘누가’, ‘어떻게’, ‘어디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그런데 [A]에는 기사의 작성 원칙을 고려하여 ‘얼마 전’이 ‘지난 10월 24일’로 수정되었고, ‘신문 동아리 학생들은’, ‘학생회 회의실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라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토론의 논증 구성 방식 파악하기

(나)의 ‘찬성 1’은 첫 번째 발언의 ‘지난 토론 ~ 알 수 있었습니다.’에서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 신문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첫 번째 쟁점인 ㉔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반대 1’은 첫 번째 발언의 ‘지난 토론 이후 ~ 잘못된 주장입니다.’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㉔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을 반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찬성 2’는 ‘매체 이론 전문가 ~ 접이라고 생각합니다.’에서 매체 이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㉔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반대 2’는 ‘최근의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에서 신문 기사의 내용을 통해 ㉔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을 반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반대 1’은 두 번째 발언의 ‘게이트 키핑은 ~ 있다고 생각합니다.’에서 언론 관련 전문 용어를 통해 ㉔에 대한 반대 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㉔에서 ‘반대 1’은 특정 반 학생들이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가 전교생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는 맥락으로, ‘찬성 1’이 제시한 자료 해석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㉔에서 ‘찬성 2’는 설문 조사 결과에 이미 언론사의 인터넷 신문 기사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이 반영되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맥락으로, ‘반대 1’이 제시한 자료 해석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㉔과 ㉔ 모두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 해석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작문]

8. [출제의도] 초고 작성을 위한 글쓴이의 생각 파악하기

(나)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목록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동아리 친구들과 ~ 마음이 모아졌다.’에서 (나)를 쓰게 된 계기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그 실천의 첫걸음으로 ~ 쓰

기로 했다.’에서 (나)를 쓰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교장 선생님은 ~ 하지 않을까?’에서 (나)의 예상 독자의 특징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내일 친구들을 ~ 의논해 봐야겠다.’에서 (나)를 쓰기 위한 글감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㉔에는 단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하면 젖산 과다 분비로 근육통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㉔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서는 예전과 달리 우리 □□시 청소년의 체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㉔-1은 □□시 청소년 체력 등급 중 1, 2등급 비율이 감소하고 4, 5등급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적절하다. ② ㉔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그런 일반적인 추세에 예외적이지 않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㉔-2는 우리 학교 학생 체력 등급 중 근력 및 유연성 1, 2등급 비율이 줄어든다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적절하다. ③ ㉔에서는 체력 단련실이 교실이 모여 있는 본관에서 너무 멀리 있어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㉔에서 학교 체력 단련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본관에서 거리가 멀어’가 52%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은 학생들이 자기 자리에서 운동을 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간단한 운동 보조 기구를 구입하여 비치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㉔-2는 우리 학교 학생 체력 등급 중 근력 및 유연성 1, 2등급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㉔에는 운동 보조 기구인 탄력 밴드는 근력 강화에, 밸런스 매트트는 유연성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제 건의가 받아들여져 ~ 체력이 증진될 것입니다.’에는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생기는 기대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시들어 가는 꽃처럼 ~ 있도록 도와주세요.’에는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법이 활용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㉔의 ‘꽃이슬’은 [꽃니슬]로, ㉔의 ‘숨이불’은 [숨니불]로 발음될 때 ‘니’이라는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보조 용언 분류하기

2문단에서 보조 용언 ‘않다’는 앞에 오는 분용언의 품사를 따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의 ‘않았다’는 보조 형용사로, ㉔의 ‘않았다’는 보조 동사로 보아야 한다. 2문단에서 보조 용언 ‘보다’가 어떤 일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 동사이고,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걱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의 ‘봐’는 보조 형용사로, ㉔의 ‘보지’는 보조 동사로 보아야 한다. 2문단에서 보조 용언 ‘하다’는 앞말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바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의 ‘한다’는 보조 동사로 보아야 한다.

13. [출제의도]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연결 이해하기

㉓의 '먹어 치우고 일어났다'는 본용언 '먹어', 보조 용언 '치우고', 본용언 '일어났다'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㉔ ㉓의 '던져서 베어 버렸다'는 본용언 '던져서', 본용언 '베어', 보조 용언 '버렸다'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㉕ ㉔의 '깨어 있어 행복했다'는 본용언 '깨어', 보조 용언 '있어', 본용언 '행복했다'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㉖ ㉔의 '앉아 있게 생겼다'는 본용언 '앉아', 보조 용언 '있게', 보조 용언 '생겼다'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㉗ ㉔의 '먹고 싶게 되었다'는 본용언 '먹고', 보조 용언 '있게', 보조 용언 '되었다'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접사의 기능 이해하기

'더욱이'는 부사 '더욱'의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된 파생어이고, 접사가 결합했으나 품사는 '더욱'과 동일한 부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㉔ '드넓다'는 형용사 '넓다'의 어근에 접사 '드-'가 결합된 파생어이고, 품사는 '넓다'와 동일한 형용사이므로 적절하다. ㉕ '넓이'는 형용사 '넓다'의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된 파생어이고, 품사는 명사이므로 적절하다. ㉖ '뒤달다'는 동사 '달다'의 어근에 접사 '-뒤-'가 결합된 파생어이고, 품사는 '달다'와 동일한 동사이므로 적절하다. ㉗ '달개'는 동사 '달다'의 어근에 접사 '-개'가 결합된 파생어이고, 품사는 명사이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탐구하기

<보기>에서 '－오－'는 어말 어미 앞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어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㉓의 '풍담홀다라'에서 '－다－'는 '－더－'가 '－오－'와 결합하여 나타난 형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㉔ <보기>에서 '－오－'는 음성 모음 뒤에서 '－우－'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㉕에서 '－오－'는 '우'의 음성 모음 뒤에서 '－우－'로 나타났으므로 적절하다. ㉖ <보기>에서 '－오－'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느－'와 결합하면 '－노－'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㉗에서 '－노－'는 '－오－'가 '－느－'와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적절하다. ㉘ '－오－'가 ㉔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느－'와 결합하여 '－노－'로 나타났고, ㉕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더－'와 결합하여 '－다－'로 나타났으므로 적절하다. ㉙ <보기>에서 '－오－'는 문장의 주어가 화자임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㉚, ㉛, ㉜ 각각의 주어를 확인하면 세 경우 모두 '－오－'가 문장의 주어가 화자임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과학·기술]

[16 ~ 20] 베루즈 A. 포루잔, 「데이터 통신」

16. [출제의도] 사실 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서 타임 슬롯은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라고 했으므로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들에 의해 구성된 집합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㉔ 1문단에서 '그중 '전자요금징수시스템(ETC)'을 ~ 때문에 편리하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㉕ 3문단에서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에는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㉖ 3문단에서 '타임 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지는데'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㉗ 5문단에서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마다 ~ 프레임이 구성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핵심 과정 이해하기

[A]를 통해 ㉔에 해당하는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의 서버에서 찾아진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㉕에 해당하는 지역요금소 ETC 서버로 전송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㉖에 해당하는 차량 단말기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아니라, ㉔에 해당하는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의 서버가 찾은 데이터인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㉔ [A]를 통해 ㉔에 해당하는 제1기지국은 ㉔에 해당하는 차량 단말기로부터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전송받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㉕ [A]를 통해 ㉔에 해당하는 제1기지국에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면서 거의 동시에 ㉔에 해당하는 지역요금소 ETC 서버로 전송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㉖ [A]를 통해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㉔에 해당하는 제2기지국을 경유하여 ㉔에 해당하는 차량 단말기로 전송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㉗ [A]를 통해 ㉔에 해당하는 지역요금소 ETC 서버는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후 ㉔에 해당하는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의 서버로 전송함을,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㉔에 해당하는 지역요금소 ETC 서버에서 ㉔에 해당하는 제2기지국으로 전송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㉔과 ㉕을 보면 데이터 처리 과정의 정확성은 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의 효율성은 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핵심 원리 이해하기

1번 차량은 I-4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대상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었으므로 TS₁에 요금 감면 대상이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지만, 2번 차량은 I-4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대상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으므로 TS₈에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㉔ 1번 차량은 동기식 시분할 방식에 해당하는 차량이고, I-2에 해당하는 후불 카드를 사용함이라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TS₂에 데이터가 담기지 않고 비워진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㉕ 1번 차량과 2번 차량은 모두 I-3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함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었으므로 1번 차량의 일치 여부를 TS₈에서, 2번 차량의 일치 여부를 TS₇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㉖ 1번 차량은 I-1에 해당하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함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었으므로 TS₁을 통해 1번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2번 차량은 I-3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함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었으므로 TS₇을 통해 2번 차량의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㉗ 2번 차량은 I-1에 해당하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함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었으므로 TS₈에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는 것을, I-2에 해당하는 후불 카드를 사용함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었으므로 TS₆에는 후불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㉓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를 의미하므로 ㉔의 '나누었다'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를, ㉕ '같은 찢줄을

타고나다.'를, ㉖ '말이나 인사를 주고받다.'를, ㉗ '즐거움, 고통, 고생 따위를 함께하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사회]

[21 ~ 26] 박진우, 「파생상품론」

21. [출제의도] 사실 정보 확인하기

파생상품의 전망은 윗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㉔ 2문단의 '19세기 중반 ~ 계약으로서 기능하였다.'에서 '선도'라는 파생상품의 종류가 있음을, 3문단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파생상품이 나타났다.'에서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의 종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㉕ 1문단의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에서 파생상품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㉖ 2문단의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은 ~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에서 파생상품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㉗ 파생상품의 등장 배경은 2문단의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기 ~ 수박에 없었다.'에서 파생상품의 등장 배경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중심 개념 이해하기

3문단의 '선물은 기초자산을 ~ 선도와 동일하다.'를 보면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 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거래한다는 계약이라는 점은 선도와 선물의 공통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㉔ 1문단의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를 보면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진술은 파생상품인 선도와 선물의 공통점이므로 적절하다. ㉕ 2문단의 '또한 계약을 ~ 늘 존재했다.'와 3문단의 '이를 통해 거래 안정성이 확보되어'를 보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만기 이전에 그 계약을 임의적으로 파기할 위험이 높았다는 것은 선도만이 지니는 특징이므로 적절하다. ㉖ 2문단의 '또한 계약을 ~ 늘 존재했다.'와 3문단의 '셋째, 거래와 ~ 마련해 주었다.'와 4문단의 '선물 거래의 ~ 등이 있다.'를 보면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대거래, 증거금, 일일정산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선물만이 지니는 특징이므로 적절하다. ㉗ 2문단의 '그래서 선도의 ~ 찾기가 어려웠다.'와 3문단의 '하지만 공인된 ~ 역할을 하였다.'를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당사자들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선물만이 지니는 특징이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그래프의 내용 분석하여 이해하기

4문단의 '한편 일일정산의 ~ 마진콜이라고 한다.'를 보면 마진콜은 증거금 계좌 잔고가 개시증거금 이상 이 되도록 증거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TS₂에서는 유지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S₂를 뺀 만큼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마진콜이 발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㉔ 4문단의 '개시증거금은 계약 당사자가 ~ 맡겨야 하는 증거금으로'를 보면 TS₀에서는 S₀이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적절하다. ㉕ 4문단의 '일일정산은 선물 거래가 ~ 가산하는 장치이다.'를 보면 적절하다. ㉖ 4문단의 '유지증거금은 선물 거래가 ~ 증거금을 의미한다.'를 보면 TS₁에서는 S₁이 유지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선물 거래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㉗ 4문단의 '이러한 마진콜을 ~ 일일정산은 불가능하다.'를 보면 TS₂의 S₂보다 높아진 금액인 S₃은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TS₃에서는 일일정산이 가능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다.

24.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서 '개시증거금은 계약 당사자가 ~ 적은 금액이다.'라고 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개시증거금만으로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 선물 가격 변동의 몇 배에 해당하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개시증거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과 수량을 곱한 액수의 일부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이해하기

2문단의 '거래대상을 팔려는 매도자'와 '거래대상을 사려는 매수자'와 5문단의 '한편 앞에서 ~ 넘기게 된다.'를 보면 갑과 을 사이의 주식 거래 관계는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5월 30일에 이미 청산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5문단의 '현재 시점에서 ~ 것을 의미한다.'를 보면 5월 10일에 갑과 을의 선물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은 을에 대해서 선물의 매수자, 을은 갑에 대해서 선물의 매도자가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5문단의 '그런데 만약 ~ 가정해 보자.'를 보면 5월 30일에 갑과 병의 반대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과 을 사이의 선물 거래 관계는 청산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5문단의 '그런데 만약 ~ 가정해 보자.'를 보면 5월 30일에 갑과 병의 반대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은 병에 대해서 선물의 매도자, 병은 갑에 대해서 선물의 매수자가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5문단의 '그러므로 선물 계약의 ~ 사게 된다.'를 보면 6월 8일에 선물 계약에 따른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을은 병에 대해서 주식의 매도자, 병은 을에 대해서 주식의 매수자가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선물 계약의 만기 시점에서의 손익 계산 방법은 5문단에서 '만약 이 계약이 만기 시점까지 ~ 곱한 금액이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선물을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의 갑의 손익은,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에서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을 뺀 -8만 원에, 거래수수 10과 계약 수 5를 곱한 -400만 원이다. 또한 반대거래가 이루어졌을 때의 손익 계산 방법은 5문단에서 '그런데 만약 ~ 바꾸기만 하면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반대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갑의 손익은, 반대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물 가격에서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을 뺀 -3만 원에, 거래수수와 계약 수를 곱한 -150만 원이다. 따라서 ㉔는 -150, ㉕는 -400이다.

[인문]

[27 ~ 30] 카타르지나 드 라자리-라텍 외, 「공리주의 입문」

27.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최선의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세 이론인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선호 공리주의', '이상 공리주의'를 제시하고 각각의 주장과 한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1문단의 '공리주의는 일반적으로 ~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를 보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와 ~ 이상 공리주의이다.'를 보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의 '선호 공리주의는 쾌락뿐만 ~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의 '그러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를 보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1문단의 '이러한 공리주의는 인간이 ~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를 보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제시된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1문단의 '이때 본래적 가치란 ~ 도구적 가치와는 상대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이다.'와 4문단의 '자유, 생명, 배려 등의 ~ 해당한다고 본다'와 4문단의 '이상 공리주의에 따르면 ~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구성한다.'를 보면, '학생 1'은 생명이라는 가치를 본래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보고 있는 '학생 2'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것이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의 '그 인문학 서적을 읽고 ~ 배려를 실현하였다.'와 4문단의 '배려 등의 이상들도'와 4문단의 '그렇기 때문에 이상 공리주의는 ~ 실현되어야 할 이상들을'을 보면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의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을 ~ 즐거움을 느낀 A는'과 1문단의 '그리고 인간은 ~ 증진하려 하는데'와 2문단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최선의 결과를 ~ 여기고 있는 것이다.'를 보면 적절하다. ② <보기>의 '배려와 관련된 ~ 모두 큰 즐거움을 느꼈고'와 2문단의 '이 이론에 따르면 ~ 증진하는 행위이다.'를 보면 적절하다. ③ <보기>의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A는 ~ 친구들과 함께 읽었다.'와 3문단의 '이 이론은 최선의 결과를 선호의 실현으로 본다.'와 1문단의 '인간의 최대 이익과 ~ 좋은 행위로 본다'를 보면 적절하다. ④ <보기>의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A는 ~ 친구들과 함께 읽었다.'와 3문단의 '선호 공리주의에 따르면 ~ 실현시키는 행위이다.'를 보면 적절하다.

[고전시가·고전수필]

[31 ~ 35] <출전> 최현, 「용사유(龍蛇吟)」

정약용, 「원목(原牧)」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서는 '하나 한 ~ 쏘아맞다'와 '충혼 의백을 ~ 부르려는가'를 통해, 무책임한 관리들과 회생적인 백성들을 대조하여, (나)에서는 3문단의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와 5문단의 '그리하여 한결같이 백성들은 ~ 된 것이다.'를 통해 백성을 위해 있는 목민관과 그렇지 않은 목민관을 대조하여 주제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하나 한 ~ 쏘아맞다'는 수많은 관리들이 숫자만 채울 뿐이라는 의미로 전쟁이라는 현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나타낸 부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질풍'은 임진왜란을, '경조'는 백성들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질풍이 아니 불면 경조를 누야드뇨'는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이 아니라면 백성들의 강인함을 누가 알겠냐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③ '충혼 의백을 ~ 부르려는가'는 의병들의 의로운 넋을 추모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④ '조종 구강에 ~ 넘겨 주어'는 조상의 영토에 도적이 임자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도적'은 왜적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원혈이 ~ 성장하니'는 원통한 피가 흘러내려 평지가 강이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이해하기

(가)의 '죽느니 ~ 한티 마라'는 전쟁 중에 죽는 사람

들이 많은데 이 죽음을 한탄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나)의 6문단에서 목민관이 '형벌과 위엄'으로 백성을 '두렵게' 하는 것은 관리들이 백성을 가혹하게 대한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니 도흔 ~ 백성이요'는 수령들이 이로 백성을 물어뜯고 있다는 의미이고, (나)의 7문단에서 목민관이 백성을 '매질하고 곤장을 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백성을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재화로 ~ 너모며'는 재물로 쌓은 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고, (나)의 7문단에서 '돈과 ~ 마련'한다고 한 것은 백성으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땅과 집을 마련한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인모 불장하니 ~ 엇디호료'는 지배층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나)의 7문단에서 목민관이 '굶어 죽은' '한 사람'에 대해 '제 스스로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관리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희도 ~ 엇덜고'는 낮도 좋지만 밤에 노는 것도 좋다는 의미이고, (나)의 6문단에서 '자신이 목민관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은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는 관리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표현을 비교하여 이해하기

(나)의 ㉔에는 4문단의 '백성들의 바람에 따라'와 '모두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었다'를 통해 백성들의 바람이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의 ㉔에는 '분찬하니 이 시름 뉘 맛들고'를 통해 전쟁으로부터 달아나 숨은 행위가 드러나 있을 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35. [출제의도] 표현의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4문단의 '백성들의 바람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것'을 통해 ㉔는 백성의 바람이 반영된 편안한 삶이라는 결과를 낳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의 '임금을 높이고 ~ 것이다'를 통해 ㉕는 목민관을 위한 백성의 삶이라는 결과를 낳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시]

[36 ~ 38] <출전> 윤동주, 「흰 그림자」

북효근, 「연어의 나이트」

36.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의 경우, '나는 총명했던가요'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가 그동안 스스로의 모습이 어땠는지 떠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경우, '다시 그 강에 ~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연어의 생의 형식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보기>에서 '흰 그림자'는 화자의 분열된 자아이며 내면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라고 했고, (가)의 화자는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내 방'으로 돌아온 것이므로, 내면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화자는 암담한 시대 현실에서 고뇌로 지쳤다고 했고, '시들은 귀'와 '오래' '괴로워하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화자는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냈다고 했고, '수많은 나'를 '제고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흰

그림자'는 화자의 분신이고 애정의 대상이라고 했고,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화자는 갈등을 극복하고 빈민에서 벗어나 목욕터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고, '시름없이'와 '신님이 깊은 의젓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이해하기

'언어의 살결에 나무처럼 단단한 한 시절이 있었다'에서 '한 시절'은 언어도 나무처럼 시련을 이겨 내며 단단한 생의 행로를 열어 가는 시절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죽은 어미언어의 나이테를 먹은 새끼언어가' '몇 만 년을 두고 다시 그 강에 회귀하는 것'에서 '몇 만 년'은 언어가 강으로 회귀하는 생의 형식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과 '한 시절'을 연결한 것이 '강으로 회귀하는 언어가 나무처럼 생을 마감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1행~2행, 7행~8행으로 볼 때, '언어의 살'과 '제 근육'에 나이테 무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단단한 한 시절'과 '굴뚝같이 단단한 것'에서 언어와 나무의 무늬에 단단함이 있음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② 9행과 5행으로 볼 때, '폭포수를 뛰어넘는 언어'와 '숯구치던 나무'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아래로 향하는 힘을 거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힘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강인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11행의 '내동맹이 칠 때마다'와 6행의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로 볼 때, '사나운 물살'과 '눈바람'은 언어와 나무에게 반복적인 시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언어와 나무는 이를 견어 내며 나이테를 새겨 넣었으므로 적절하다. ④ 14행~17행의 나무가 '눈바람을 순한 향기로 뽀아내놓듯이' '언어의 살결에선 강물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볼 때, '강물 냄새'와 '순한 향기'가 시련을 겪은 결과 지니게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언어와 나무가 자신에게 시련을 준 '사나운 물살'과 '눈바람'을 승화시켜 간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39 ~ 42] <출전> 작가 미상, 『권익중전』

3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오늘 남자를 만나 ~ 말이오?'와 '남궁님은 지나치게 슬퍼하지 ~ 천명을 어이 거역하오리까?'를 보면 권익중과 이 남자의 대화를 통해 권익중의 슬픔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위 남자가 익중인 줄 여겨 반겨하고 서촉 안부를 물으니, 우인이 대강 대답하고'라고 했으므로, 위 남자는 안부를 묻는 말에 대한 우인의 대답 때문에 우인을 반겼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승상은 부인을 붙들고 ~ 거짓 익중인지 알기 어려웠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어젯밤에 여자 여차한 ~ 과연 그대로이구나.'와 '먼저 온 것이 ~ 귀신이 분명하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권생이 며칠을 ~ 익중이 이를 보고'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짜로 들어온 ~ 동정호에 빠져 죽으리라.'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A]의 '너의 집을 ~ 내가 있으리라'에서는 부정적 상황, '저 늙이 그놈이로다'에서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추측이 드러나 있으며, [B]의 '우리 둘이 만났으니'에서는 긍정적 상황, '만고여환 풀어진다'에서는 긍정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이 약을 가져다가 ~ 아이를 데려가옵소서'에서 이 남자가 예상하는 오 년 후 상황은 이 남자와 가짜 익중의 만남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육황상제께서' 이 남자에게 '허수아비를 만들어 주시며'와 '자태와 얼굴은 익중과 같이 만들었노라'에서 진가쟁주가 천상계의 개입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하인이' 진짜 익중을 '당장의 곤욕과 매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때린 것에서 진가쟁주가 익중에게 고난을 겪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중문에 들어오는 ~ 둘러 내쫓아라.'와 '익중이 하는 수 없이 뛰쳐나와'와 '익중은 화려한 꽃무늬 ~ 입고서 육례를 치르니'에서 진가쟁주가 집에서 쫓겨난 익중과 이 남자를 재회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부인이' 하인에게 '중문에 들어오는 ~ 둘러 내쫓아라.'라고 명령하는 것에서 진가쟁주가 익중과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43 ~ 45] <출전> 조정래, 『청산택』

4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A]의 '청산택 기시요?', '누구다요?', '마침 기렸구만 이라.' 등을 볼 때 사투리를 사용하여 반장과 청산택의 대화 상황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에서 동네 사람들은 피란을 가지 않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피란민은 '싸움이 한창'인 때에 동네로 몰려들었으므로 전쟁이 끝나자 피란민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은 남편이 갑자기 전쟁터로 끌려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편이 '소 잘 간수하고, 만득이 병 안 들게' 하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가족에 대한 남편의 걱정을 엿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은 낯선 사내가 말을 주저하는 모습인데, 낯선 사내가 청산택에게 전하려고 한 것은 천만득의 전사 통지서이므로 낯선 사내의 망설이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은 '전사 통지서'라는 말을 들은 청산택이 쓰러지는 장면인데,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청산택은 만득이의 전사 소식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청산택의 충격을 엿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에서 청산택은 자신을 보고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며느리에게 '작가라앉'은 목소리로 조언을 하고 있으므로 청산택의 차분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청산택이 '다시 정신을 차린' 후 '손에는 낫'을 들고 '뎨발인 채 뛰'는 것은 아들 만득이의 전사 소식을 듣고 난 후의 충격과 울분을 드러내는 행동일 뿐, 사회를 치유하려는 개인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이 작품에는 역사적 절곡이 빚어낸 민족의 희생이 드러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청산택 남편은 '정용'과 '전쟁터로 끌려 나'가는 시련을 겪고 있다. 여기서 '정용'과 '전쟁터'는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절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이 작품은 반복되는 수난을 겪는 여성의 한(恨)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청산택이 만득이의 '전사 통지서'를 받고 '남편의 얼굴'과 '만득이 얼굴이 뒤범벅이 되'는 느낌을 받은 것은 남편의 죽음에 이어 아들의 죽음을 겪는 청산택의 반복되는 수난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이 작품은 자손을 지키려는 여성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청산택이 며느리에게 '울지 말'고 '자식 맘새 이빨 앙물고 살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손을 지키려는 의지로 발현된 강인한 모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이 작품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청산택이 '아들 장례에 쓸 송편을 온 정성을 다해 빚'는 것은 죽은 아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송편을 준비하는 행동으로 어머니 청산택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